

충성대신보

제 194호
2022년 5월 6일 금요일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60기 정시생도 · 61기 예비생도 모집

2022. 4. 25 ~ 5. 31



f 페이스북



N 네이버



유튜브



홈페이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02 학교소식
03 학교소식
05 학교소식
06 생도광장

렌즈로 보는 충성대의 봄
2년 6개월 만의 캠퍼스 개방
사관생도 정시 60기 · 예비 61 모집 안내
생도대대나무숲

08 생도광장
11 오피니언
15 동문소식
16 발전기금

충성대는 사랑을 심고
사회 저명인사 킬링
동문(同門)의 소리
발전재단 소식





렌즈로 보는
충성대

봄봄봄봄이
왔어요

- ① 성격발달교육
- ② 정보보안개론수업
- ③ 신호및 시스템 교육
- ④ 군대체육
- ⑤ 교내 봄풍경
- ⑥ 영어강독
- ⑦ 봄호국정 생도

팬데믹 딛고, 2년 6개월 만의 캠퍼스 개방

엔데믹 시대 일상회복의 첫걸음, 생도 가족과 3사 27기 동기회 등 2000여 명 초청

학교는 엔데믹 시대를 맞아 4월 29일, 일상회복을 알리는 첫걸음으로 학교를 전면 개방하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입학식, 졸업 및 입관식 등 주요행사를 온라인 생중계나 SNS를 통해서만 자녀를 만나야 했던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가족과의 만남이 제한되었던 생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이다.

학교 장병들과 생도들의 환영을 받으며 도착한 2,000여 명의 생도 가족과 3사 27기 동기회원들은 이날 충성의식 관람과 생도와의 시간을 가진 후 생활관, 교육 시설, 호국정 등 학교시설 곳곳을 산책하며 충성대의 봄을 만끽하였다.



▲ 충성의식을 관람하는 생도 가족 및 친지

특히, 충성의식 중 생도들은 부모님께 보내는 영상편지와 어머니님 마음 제창 등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가족 초청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59기(3학년) 강정민 생도 부모님은 “늠름한 생도로 성

장한 아들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아야만 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다”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입관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3사 27기 동기회는 약 30여 년 만에 동기와 가족들이 모교이자 마음의 고향인 충성대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2020년 입관 30주년을 맞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뒤늦게나마 기념하고자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발전기금과 위분금을 전달하고 후배들을 격려했다.

학교장(고창준 소장)은 이날 “오늘 행사가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을 딛고, 만남과 격려, 추억을 함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생도들이 가슴에 큰 꿈을 안고 조국에 충성을 다하는 정예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역량을 모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대위 박광선



행시간 분열을 실시하고 있는 사관생도들

웹 메타버스 플랫폼 ‘Zep’과 연동, 입시홍보 메타버스 서비스 시작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극복하고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새로운 시도

학교는 입시정보와 학교정보를 제공하는 메타버스 캠퍼스 서비스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상황 속 대면 홍보가 제한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웹 메타버스 플랫폼 ‘Zep(젝)’과 연동하여 개설한 메타버스 캠퍼스 ‘KAAY Universe(카이 유니버스)’는 모바일과 PC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한 번에 500명까지 접속할 수 있어 대규모 인원을 상대로 하는 입시설명회와 입시상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Zep(젝) : 웹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가상공간에서 캐릭터 또는 아바타를 움직이며 텍스트 채팅, 음성·화상대화를 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11월 출시된 후 MZ세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메타버스 캠퍼스에 접속하면 입시 지원 홈페이지, 챗봇, 입시상담 서비스가 연동되어 입시정보를 비롯한 학교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4월 20일에는 메타버스 캠퍼스 안에서 입시설명회도 진행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Zep(젝)’

을 기반으로 ‘KAAY Universe(카이 유니버스)’ 개설을 준비한 국방시스템과학교 수 김영민 대위는 입시홍보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화상회의, 라이브 강연 등 비즈니스 기능이 있는 가상공간에 중점을 둔 메타버스 캠퍼스를 구축하였다.

추후 기술적인 부분을 연구해 3D 캠퍼스 구현, 역사관 방문, VR 기능을 추가하는 등 홍보 목적뿐만 아니라 생도들 교육에도 가상공간이 활용될 수 있게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생도 모집홍보 등 입시

업무를 총괄하는 평가관리실장(대령 김호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모집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접근성과 편의성,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해 학교 홍보와 지원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학교는 대학생이 지원 가능한 편입학 사관학교로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60기 정시생도와 61기 예비생도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주무관 길진규



▲ 메타버스 캠퍼스 ‘KAAY Universe’ 전경



김영민 대위

▲ 메타버스 캠퍼스 개설을 준비한 김영민 대위가 ‘KAAY Universe’를 시연하고 있다.

군환경연구센터-한국화생방방어학회 춘계 학술대회 공동주최

“환경·재난분야 대응 수처리 최신 기술” 교류의 장 마련

학교 군환경연구센터(센터장 중령 허지용)는 (사)한국화생방방어학회와 공동으로 ‘2022 한국화생방방어학회 춘계 컨퍼런스’를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춘계 컨퍼런스는 대규모 환경 재난, 화생방무기 확산, 테러, COVID-19 등 바이러스 위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신개념 무기체계 창출을 위하여 산·학·연 및 군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자와, 국방과학연구소, 국군화생방방어사령부, 군환경연구센터, 국군의학연구소, 육군사관학교, 육군화생방학교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00여 편의



정은수생도가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논문발표와 더불어 핵심주제에 관한 토론 시간도 가졌다. 또한, 군환경연구센터는 이번 춘계 컨퍼런스 공동주최를 통해 환경·재난 분야에서의 군내·외 민간전문가들과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One-stop 의견수렴을 통해 최신의 환경기술들을 이해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재난·환경분과 프로그램이 처음 개설되었는데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등 외부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였다. 특히, 재난/전시 상황에서 전투력과 생존성 보장을 위한 물 공급 문제가 언급되었고,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정수의 필수 성능을 만족시키는 정수 장비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이러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재난 및 전시에도 원활한 물 공급을 하여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작전지속지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군환경 연구센터는 재난·환경분과 프로그램에 맡아좌장: 중령 한종훈) ‘재난 및 전시의 무동력 상황에서 물 공급을 위한 정삼투 하이브리드 정수 시스템의 성능 평가 및 예측’ (중령 허지용), ‘재난지역 하수처리를 위한 무동력 정삼투-저압 시스템 적용 시 유기물 제거특성에 관한 연구(대위 조경근)’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정은수 생도(女, 58기)는 바쁜 생도 생활 중에도 연구 활동을 지속해 ‘포도당 음료의 삼투압과 정삼투막을 활용한 재난/전시용 정수연구’ 내용을 발표해 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군환경연구센터는 전·평시 먹는 물 확보 방안 연구, 토양 중금속 오염, 사격장 소음, 폐기물처리에 관해 연구하는 군 최고의 환경 자문기관이다. ‘18년 창설 이후 10건의 육군 정책과제와 40여 건의 학술논문 및 발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작년엔 세계 최초로 화약류에 대한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아 군 환경정책자문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대위 박광선



군환경연구센터, 국방과학연구소, 국군화생방방어사령부, 광주과학기술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허지용 교수(중령, 중앙), 진희은(58기, 중앙 좌측), 정은수생도(58기, 중앙 우측)

사관생도, 前 미 7함대 사령관과의 온라인 만남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군의 역할에 대한 비대면 특별강연

학교는 지난 3월 21일, 캘리포니아 주립대(UCSD) 국제 정치대학원 로버트 토마스(Robert J. Thomas, 前 미 7함대 사령관) 교수를 초청해 4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강연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토마스 교수는 “현재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이며, 군의 미래가 될 생도들이 한미동맹의 중요

성을 직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 군과의 근무경험에서 느꼈던 한국군의 강한 전투력을 언급하며 향후 한국이 아시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적 소견을 밝혔다.

영어학과는 생도들의 연합작전능력 함양을 위해 지난해부터 비대면으로 미국 육군 사관학교(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West Point) 생도와의 만남, 미 해병 참전 장교의 소부대전투기술 강연 등의 활동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UCSD) 국제정치대학원 스테판 해거드(Stephan Haggard) 박사의 초빙 강연도 실시했다. 주무관 길진규



▲ 로버트 토마스(Robert J. Thomas) 교수



▲ 비대면 강연을 시청하고 있는 생도들

학교 장병 및 가족 대상 운주산승마교육 시행



▲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협약

운주산승마조련센터는 지난 4월 학교 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승마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된 이번 승마교육은 기초승마강습반으로 화요일~금요일에 총 8회로 진행됐다. 기초승마강습반 교육은 단순히 말을 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승마 전 안전수칙 및 올바른 승마 자세 등의 이론 수업부터 평보와 속보, 경·속보의 실전 이행 연습까지 승마

에 필요한 지식 전반에 대해 실습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간부들은 “타 도시와는 차별화된 영천만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승마장과의 활발한 교류로 다양한 승마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학교 장병과 가족 대상 기초승마강습반은 각 2기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2기는 6~7월에, 3기는 10~11월에 운영되며 인사행정처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주무관 길진규



▲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실내 승마장 기초승마강습반 수업 모습

3, 4월 학교 간부 전·출입자 명단

전입 육군3사관학교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교수부 공학처 기계공학교수 대위 조진우
- 생도대 7훈육장교 대위 김병관
- 생도대 여훈육관 소령 최성순
- 근무지원단 의무대대 이비인후과과의관 대위 김지룡
- 근무지원단 의무대대 신경외과의관의관 대위 박광태
- 학교본부 공보정훈실 사진/영상담당 여주미
- 학교본부 평가관리실 학적관리담당 6급 신명희
- 근무지원단 정비근무대 총포정비담당 7급 김민정

전출 육군3사관학교는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

- 학교본부 공보정훈실 사진/영상담당 7급 김민수 → 교육사
- 학술정보원 CB7개발담당 8급 박은비 → 50사단
- 행정부 재정처 국고출납장교 대위(진) 전철홍 → 5군단
- 생도대 군사훈련처 전술학교관 소령 권동근 → 육군대학
- 교수부 인문학처 영어학교수 소령 주성은 → 육군대학
- 교수부 인문학처 군사사학교수 소령 니상철 → 육군대학
- 교수부 이학처 화학환경과학교수 소령 장태문 → 육군대학
- 근무지원단 의무대대 치과과의관의관 대위 지정규 → 28사단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모집

대학 3·4학년 과정 편입학 사관학교



원서접수 : 2022. **4.25** (월) ~ **5.31** (화) • 접수 : 인터넷(www.univapply.co.kr)
 • 문의 : www.kaay.mil.kr 054)330-3701~02/3720~22

2023학년도 **정시생도 60기** • 학력 : 4년제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연령 : '98.3.1~'04.2.29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남·여

2024학년도 **예비생도 61기** • 학력 : 2·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 3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 연령 : '99.3.1~'05.2.28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남·여

모집인원 : 550명(남자 495명, 여자 55명)

*기선발된 남자 100명, 여자 10명 포함

• 선발일정 : 4. 25~10. 28

지원서접수	1차 선발발표	2차 필기시험	2차 선발발표	3차 선발시험	최종발표
4. 25(월)~5. 31(화)	6. 17(금)	7. 2(토)	7. 15(금)	8. 2~8. 26	10. 28(금)

• 선발배점 / 유형 : 400점 만점

구 분	1차 선발시험(140점)			2차 필기시험(160점)		3차 선발시험(100점)		
	대학 성적	고교 내신	수학능력 성적	영어	간부선발도구 (지적능력)	면접	체력 검정	신체 검사
배 점	40점	100점	100점	60점	100점	60점	40점	
비율(%)	10%	25%	25%	15%	25%	15%	10%	

• 입시제도 변경사항(60기)

- 선발 배점 조정
- 고교내신·수학능력 검정시험 비중 확대(60점→100점), 영어시험 비중 축소(100점→60점)
- 체력검정 : 체력측정 3종목(학교 자체 측정)→국민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서로 대체
- 여성도 2차 합격 인원 배수 변경 : 4배수 → 3배수
- 가산점 적용 대상 추가
- 우수인재 분야 : 체육 특기자, 사이버 특기자 / **고른기회 분야** : 독립·국가유공자 자녀, 기초수급대상자, 다문화 가정

모집인원 : 남자 150명 이내, 여자 15명 이내

• 선발일정 : 4. 25~10. 14

지원서접수	1차 선발발표	2차 필기시험	2차 선발발표	3차 선발시험	최종발표
4. 25(월)~5. 31(화)	6. 17(금)	7. 2(토)	7. 15(금)	7. 25~8. 2	10. 14(금)

• 선발배점 / 유형 : 400점 만점

구 분	1차 선발시험(140점)			2차 필기시험(160점)		3차 선발시험(100점)		
	고교 내신	수능 성적	공인영어 성적	영어	간부선발도구 (지적능력)	면접	체력 검정	신체 검사
배 점	90점	50점	50점	60점	100점	60점	40점	
비율(%)	22.5%	12.5%	12.5%	15%	25%	15%	10%	

• 입시제도 변경사항(61기)

- 선발 배점 조정
- 고교내신 비중 확대(50점→90점), 영어시험 비중 축소(100점→60점)
- 체력검정 : 체력측정 3종목(학교 자체 측정)→국민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서로 대체
- 여성도 2차 합격인원 배수 변경 : 4배수 → 3배수
- 가산점 적용 대상 추가
- 우수인재 분야 : 체육 특기자, 사이버 특기자 / **고른기회 분야** : 독립·국가유공자 자녀, 기초수급대상자, 다문화 가정

생도대 대 나무 숲

이 글은 생도들의 실제 시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HOT KAA Y 통신

KAA Y 통신은 학교 내 생도들 사이에서 은연중에 퍼지는 일종의 소문을 뜻하는 말이다. KAA Y 통신은 빠르면 하루 이내에 생도여단에 퍼지게 되는데 가끔은 과장 되게, 가끔은 왜곡되어서 전파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달에 가장 뜨거웠던 KAA Y 통신을 찾기 위해 생도들을 수소문하였다. 홍보출장은 생도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기존 계획된 홍보출장의 날짜는 5월 2일부터 6일 총 5일간이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나갈 수 있는 지도 확실하게 몰랐던 3월. 홍보출장에 대한 KAA Y 통신이 돌기 시작했다.

A 생도: 계획된 홍보출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잖아! 근데 솔직히 주말에는 쉬니까 미리 나가지 않을까? 토요일에 나가는거지 그럼!
B 생도: 와! 그럼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홍보출장인가?
A 생도: 잠깐만, 생각을 해봐. 같은 논리로 생각하면 복귀도 일요일에 해도 되는거 아니야?
B 생도: 그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9일간의 홍보출장을 나가는거네?
A 생도: 그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잖아ㅠㅠ 그렇게 나갈 수 있겠지?

다음날.

B 생도: 그거 들었어? 우리 홍보출장 9일 나간대! 주말에 어차피 쉬니까 보내준다고 하던데?

그렇게 생도들의 홍보출장 기간은 아무도 모르게 길어져 가고 있었다

Music is my Life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 다양한 성격을 가진 생도들. 2년간 더불어 지내는 과정에서 때로는 선·후배 관계부터 동기 생도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트러블을 겪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음악은 언제나 피로와 마음의 상처로부터 나 자신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다

음악은 잔잔한 물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미치는 그 파급력은 매우 크다. 마치 음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말이다. 에어팟을 끼고 경례를 할 때 좀 더 내가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에어팟을 끈은 채로 노래를 들으면서 분리수거를 하는 것은 나를 청소의 달인으로 만들고 마법같이 청소의 효율을 올려준다. 마지막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보행할 때, 마치 톰 하디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바깥세상에서 습관적으로 하였던 이런 행위들이 여기서는 당연사치어도 되는 일인 것일까?

뒤통수

경례는 상급자에게 충성심을 나타냄과 동시에 간단한 인사말을 덧붙여 친근감을 표시할 수도 있다. 충성! 찌렁찌렁 심금을 울리는 소리와 함께 같이 서 있는 각도로 경례를 하는 생도들의 모습을 보면 괜히 가슴이 웅장해진다. 하지만 가끔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경례하는 생도들이 있다

여러 요약평가와 과제로 인해 생각에 잠겨 길을 걸어가고 있던 58기 A생도. 잠시 후 엄청나게 큰 경례 소리를 들었다. A생도는 후배 생도의 경례를 받아주기 위해 전방을 응시하였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에 놀란 A생도는 오른쪽을 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에 더 놀란 A생도는 왼쪽을 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A생도는 요즘 내가 피곤해서 헛것이 들리는가 하고 다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갑자기 설마하는 생각에 뒤를 돌아보았다. 59기 후배 생도가 굳은 자세로 팔을 내리지 못한 채 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A생도는 충격을 받았다

A 생도: 내 뒤통수를 보고 경례를 한 것이니?
후배 생도: 죄송합니다!
A 생도: 그래. 앞으로는 뒤통수에다가 경례하지 말고 행정예규에 입각하여 정확한 경례를 해라.
후배 생도: 예 알겠습니다!

A생도는 후배 생도에게 뭔가 하나 알려줬다는 뿌듯함에 당당하게 다시 기던 길을 간다. 후배 생도는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리고 선배 생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경례를 한다. 자리를 떠난 선배 생도의 뒤통수에다가..

기계화 보병

기계화 보병이라는 단어는 생도들에게 다른 의미로 여겨진다. '차량 탑승을 한 생도'라는 의미이다. 군사학기가 시작되면 우리는 학교 밖에 있는 과목별 교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최소 30분 이상 구불구불한 산길을 걸어가야 한다. 교장으로 이동하는 행군 자체가 훈련의 시작이자 그것은 고난의 연속이다. 간혹 훈련 중 다쳤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생도는 차량에 탑승하여 교장까지 이동하게 된다. 말하지 않아도 동기들은 다 알게 된다. 누가 차량에 탑승했는지. 그렇게 그들을 기계화 보병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땀에 젖은 전투복을 입은 채 교장으로 이동하면서 기계화 보병을 마주친다. 빨리 나왔으면 하는 마음과 친한 동기를 놀리는 마음에 오늘도 그들은 외친다

"기계화 보병 지나간다~ 부럽다~! 나도 다칠까? 너무 힘드네"

웃픈 현실이지만 오늘도 정예장교가 되기 위해 정진하는 생도들을 위해 격려가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다.

라이프 오브 KAA Y

육군3사관학교. 그곳은 후배 생도와 선배 생도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장소이다. 생도들은 아주 재미있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머리 길이를 계급을 나눈다는 것이다. 선배 생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머리를 정리함으로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그러나 하필 정리하지 못한 날, 최상위 포식자들은 귀신 같이 그들의 머리를 쪼아댄다. 이외에도 여러 이유로 선배 생도 중 몇몇은 운동형 두발 규정을 고수한다. 이런 상황과 재미있는 습성이 만나 가끔 머리가 짧은 선배 생도를 자신의 동기로 인식하는 경우가 생긴다. 눈치를 채고 경례를 하는 생도들도 있지만 못 알아채는 경우가 다반사다. 쏙! 결국 한 선배 생도가 결국 입을 연다.

"애들아, 너희 자꾸 그렇게 머리 길이를 선배들 구별하면 나중에 나처럼 된다?"

그렇다. 저 선배 생도는 최상위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뽀뽀 밀어 버린 것이다.

파리바게트 카드

새 학기가 밝았다. 올해도 역시 파리바게트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맛있는 빵을 사기 위해 설레어있는 3학년 생도들을 보면 캔스레 웃음이 난다. 그렇게 4학년 A생도는 생도들이 만든 설렘이 가득한 열차에 몸을 맡기고 드디어 트레이를 잡는데 성공했다. 맛있는 크림빵, 조각 케이크, 음료수를 양껏 고르고 생활관에 복귀한 후 맛있게 먹을 생각에 벌써 군침이 돈다. 어느새 A생도가 계산할 차례가 되어 카드를 꺼냈을 때 뒤에서 나지막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선배생도님 안녕하십니까?" A생도는 뒤를 돌아본다. 같은 중대 소속인 3학년 생도가 나를 향해 인사를 하고 있었다. A생도는 최대한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아준다. "그레! 안녕~" A생도는 빠르게 인사를 건넨 후 3학년 생도의 트레이를 스캔한다.

"2개다. 빵 2개면 사랑하는 후배를 위해 충분히 사줄 수 있는 빵의 양이다." A생도는 자신의 빵을 계산한 후, 후배 생도에게 다가가 카드를 건네주며 말한다. "이걸로 계산해~" 3학년 생도는 감사함에 몸 둘 바를 모른다. 그렇게 카드를 전달해준 후 문자 한 통이 날아온다. "땡땡! 파리바게트 육군3사관학교점 결제완료 금액 58,000원" "어..어..어..?어..????!!!"

그렇다. 후배 생도는 아직 빵을 다 고르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만!

PX는 생도들에게 매우 저렴한 가격에 먹거리와 생필품들을 제공한다. A생도는 마침 세제가 다 떨어져서 PX에 갔다. 세제를 사러 간 김에 과자도 사고 커피도 사고 에너지 드링크도 사고 어느새 바구니가 무거워졌다

아~ 이쯤 사면 되겠지!
그렇게 물건을 다 고른 A생도는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PX 입구에서 한 생도가 나를 다급하게 부른다.
"A야, 나 계란 하나만 사다줘. 끼먹고 못샀어."
A생도는 얼른 가서 계란을 가져온 뒤 줄을 선다. "에휴, 한번에 살 때 잘 좀 사지." 그렇게 계산을 한 뒤 부탁을 한 생도에게 계란을 주며 다음부터 끼먹지 말라고 한마디를 해준다. 이후 PX 가방에 물건을 담은 A생도의 간담이 서늘해진다.
"아. 세제" 그렇다. 세제를 사러 PX를 온 A생도는 세제를 제외한 모든 물건을 구매한 것이다. A생도는 다시 PX 입구로 뛰어가서 또 다른 B생도를 부른다.

"B야.. 나 세제 하나만!"



미래의 사관생도들에게 필요한 역량



59기가자생도 김대영, 이승엽

59기 사관생도들이 입학한 지 어느덧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처음 기대 반 설렘 반을 가지고 들어왔던 59기들도 생도 생활에 점차 적응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무서운 유행은 다양한 활동에 제한이 있어 생도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59기 사관생도들은 점점 생도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곧 다가올 60기, 61기 생도들 모집에 앞서 짧게나마 지원자들과 입교할 인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서 59기 생도들과의 다양한 의견 공유를 통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A 생도 영어공부, 자격증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량적인 스펙보다는 생도 생활에 적합한 생활 습관을 갖추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충성기 초훈련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는 자기주도학습을 매우 강조하는데, 물론 사회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은 우리에게도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비생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끊임없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온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B 생도 A 생도의 말에 공감합니다. 누군가 직접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체력 단련, 일반학 공부, 자격증 취득, 휴식까지 오로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직접 설계하여 2년간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C 생도 체력에 관하여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습니다. 사관학교에 가면 체력은 자연스럽게 길러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예비생도로 들어올 여러분은 하루에 3km 씩이라도 꾸준히 뛰는 습관을 들일 것을 추천합니다. 이 글을 읽은 뒤 즉시 가까운 운동장으로 나가 체력 증진을 위해 운동하는 것은 어떨까요?

D 생도 최초로 '입교하면 토익을 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자격증을 많이 따야지'라는 꿈을 안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막상 입교하여 일 반학, 군사학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여유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들어와서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밖에 있을 때 틈틈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조금씩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 생도 '나 아니면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나서서 먼저 해야지'라는 희생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관학교도 사회의 축소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데 모두가 희생정신,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F 생도 입교하게 되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동기, 선배, 후배들과 상호 존중하며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생활 중 기쁘거나 슬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나의 옆에서 가장 힘이 되어주는 것이 전우입니다. 전우가 없다면 내가 어떤 것을 이루더라도 함께 나눌 상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 즉, 인성을 잘 함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관학교에 입교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 이 길을 꿈꾸는지 생각하길 바란다. 사관학교는 미래 정예장교가 될 인원들에게 아낌없는 가르침을 선사한다. 그만큼 2년간 훈련, 공부를 반복하며 분명히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입교했는지 잘 생각하고 이겨내 진정한 장교가 되었으면 한다. 먼 훗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후배들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이다.

59기 사관생도들의 2개월간 군 생활 경험

군대에 대한 환상과 현실의 차이점 59기 기자생도 김준호, 이상우

A 생도 처음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충성대로 들어오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충성기초훈련은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이 더 큰 훈련이었다. 환상속에선 조금의 실수만 해도 쪽안이 오가는 분위기, 항상 배고프며 힘들고 잘못된일이든 아니든 죄송하다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곳, 좋은 점이라고는 같이 훈련하고 밥을 먹고 잠드는 동기들과 서로 밀어 주며 끈끈하게 뭉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뿐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실제로 겪은 2개월간의 현실은 상상과는 조금 달랐다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히 가르쳐주시고 혹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있어도 정성껏 지도해주셨다. 오히려 이곳에서 받은 교육들은 나의 자존감을 키울 수 있었고 생각하는 방법을 비꿀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잘못된 행동한일에 대해 무작정 혼내기보다 어쩌서 그런 행동을 하였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물어보셨으며,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해주는 분들이 많았다. 훈련 이후 생도대로 넘어오고 난 뒤는 더욱이 환상이 깨지는 곳이었다. 선배 생도들도 우리가 부족하거나 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항상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도움을 주셨다. 이곳에서의 2개월간 겪은 현실은 들어오기 전 상상하던 두려운 모습과는 다르게 어떤 곳보다 내게 활기차고 자부심을 기질 수 있게 해주었다.

B 생도 우르르 몰려다니는 병사들, 그들이 다칠까봐 불안해하며 호통치는 부사관들. 짐을 소리와 명령 소리가 겹쳐져서 귀를 울리는 무전기 소리. 하늘에서 날고 있는 헬기들과 광 하며 울려 퍼지는 포성 소리와 휴먼지. 이것들이 내 머릿속, 그리고 몸에 각인되어 있는 군대였다. 수많은 훈련과 항상 실름도 없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일과, 적당히를 몰랐던 선임과의 관계와 항상 부족해 보였던 후임들. 늘 파근하게 다가왔던 인간관계.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군대는 내 머릿속에 부정적으로 생각되고 있었다. 얻을 게 많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항상 좋은 추억들이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 꺼려지는 곳이 바로 군대였다. 내가 스스로 군대에 다시 돌아가겠다짐을 했음에도 왜 다시 돌아가는 주변 지인들의 말에 '그냥 나 자신의 적성에 맞아서'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군대에 대한 인식은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안 좋았다.

들어오기 전,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가 생각난다. 그동안 받았던 군사훈련기관들을 포함해서 그 어떤 군 시설보다 더 시설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콧방귀를 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군대에 대한 환상, 부정적인 의미로 환영을 보고 있던 것은 나였다.

훈련이 진행될수록, 환상과 현실의 차이는 더 커졌다. 그저 카탈로그상의 수치만 보며 대충 던져주던 의복류들은 줄자를 이용해 일일이 자기 자신의 몸에 맞게 재었고, 예모와 정모들도 스스로 써보고 고를 수 있게 해주었다. 힘든 훈련이 진행될 때도 하나하나 주의사항을 말해주며 잘할 수 있다며 격려해 주었고, 훈련 교장에는 전문 교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초훈련이 다 끝나고 생도대에 넘어왔을 때 더 놀라웠다. 선배 생도님들이 항상 생도대 가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 정도 대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개인 책상부터 갖가지 전공 도서들 그리고 노트북까지. 정말 신기하게도, 들어온 지 2개월 남짓의 시간 동안 내게 있던 군대의 이미지를 바꿔 놓았다.



C 생도 우중충한 짙빛 하늘, 짙은 갈색의 땅, 숨 막히는 담벼락과 험악한 분위기. 본래 팔심은 데 팔나고, 콩심은 데 콩나는 법이다. 군대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는 커녕 항상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 고생하며 훈련을 뛰는 얘기, 공포가 가득한 인간관계 이야기만 듣다 보니 내게 군대에 대한 이미지는 '환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공포' 혹은 '악몽'에 가까웠다. 게다가 못 먹는 음식이 있었던 내게 음식을 남길 수 없다는 이미지까지 덧씌워지며 기피하고 싶은 곳이 되어 있었다. 유해발굴단에 가기 위해, 대학을 미루고 경력을 쌓고 있던 와중에 3사관학교에 대한 정보를 접했고, 갑작스레 진로를 변경해 이곳에 들어올 때도 생각은 동일했다. 이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10등 202호에 처음 들어왔을 때였다.

들어와서 보이는 깔끔하게 정리된 관물대와 물품들, 의복류, 손대기도 이따가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된 물건들은 내가 생각하는 군대의 이미지와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다. 그 뒤로는 생각을 깨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일이 있더라도 무엇이 잘못되었고,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주셨으며, 너무 기죽지 말라고 격려해주는 분들도 많았다.

코로나 격리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군사 훈련에 들어갔을 때도 내심 염려스러웠다. 지금까지 웃고 있는 선배님들이 모두 돌변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건 쓸데없는 기우였다. 분대장님들이 모두 '생각하는 생도'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군사 훈련에 들어가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알려주시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생도대 넘어와서도 초창기에는 상당수의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던 내 생각과는 너무도 다른 상황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생각들은 모두 구시대 군대인 반면, 3사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고 새로 적용되고 있는 선진 방식의 교육, 그리고 그러한 구시대적 악습을 모두 없애는 것에 앞장서고 있는 교육 기관이자 군부대에게 이렇게 많은 과감함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듯했다. 어쩌면 실면서 느껴본 환상과 현실이 극도로 차이는 첫 번째 경험이고, 그 반대되는 요소들이 긍정적인 부분이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충성대는 사랑을 싣고 가정의 달 기념 생도들의 사연

2중대 58기 한유나

To. 2중대 장중섭 훈육장교님께
항상 저희 2중대 58기 인원들에게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는 훈육관님
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가장 위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마음이 항상 느껴져서 저희가 사랑받고
있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갈 때쯤 한번씩 저희에게 따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저희를 꺾어 보고 계시는 거 같
아서 기쁨 소름이 돋기도 하지만, 그만큼 저희를 잘 알고 있으시다는 생각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남은 생도 생활 기간도 훈육관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잘 배우고 성장하겠
습니다.)

2중대 58기 홍예찬

To. 고지호, 김신화, 김세하, 김준호에게
멋지고 착한 우리 분대원을 벌써 만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되었네.
낯선 환경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 어렵고 힘들텐데 다들 너무 잘하고 있어. 그리고 더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아. 나도 최대한 너희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 많이 부족한 분대장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부족하다라도 조금은 이해해줘.

나는 너희들의 분대장이 되어서 너무 좋고 너희가 너무 자랑스럽다. 지금보다 더 좋은 분대를 만들어
갈 테니 평생 좋은 관계로 이어나가자. 마지막으로 지호, 세하, 신화, 준호 모두 항상 당당하게 살고 아
프지 말고 건강하고 재미있게 생활해~ 모두 사랑한다!

3중대 58기 정예라

To. 너무나도 소중한 경숙씨와 재호씨에게
엄마, 아빠 안녕! 예라예요. 외동딸로 엄청 예쁘고 소중하게 키워준 딸
이 군대에 와서 이런저런 훈련 받으면서 다치지는 않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매일 걱정하시는 것도 알
고 있고, 혹시나가고 싶지 않은 곳에 억지로 간 건 아닌지 미안해하고 있는 것도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행복해요. 동기들과 같이 훈련을 받는 것도, 일반학 수업을 받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저는 정말 행복해요.

엄마, 아빠랑 처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먼 곳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엄마 아빠 품속에서의 저는 어린
아이였다는 걸 알았어요. 동기들과 지내면서 동기들이 저를 성장시켜주고, 또 많은 걸 깨닫게 해주었어
요. 매번 외동으로 낳아서 미안하다고, 외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추
천해주신 3사관학교에서 동기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ㅎㅎ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엄마, 아빠 속안 씩일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구요
ㅋㅋㅋㅋ 다치기도 다치고, 이런저런 복잡한 일 때문에 또 걱정시켜서 많이 죄송해요ㅎㅎ 여기서는
정말 어른이 되어서 엄마, 아빠 걱정 안시키고 속안 씩일 줄 알았는데 잘 인퇴네요. 더 열심히 배우고
성장해볼게요!! 지켜봐주세요!! 많이 사랑합니다♥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5중대 58기 지윤아

To. 58기 동기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사관생도 지윤아입니다.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이라 사소한 것에도 큰
행복을 느끼고, 또 다른 작은 아쉬움에 큰 속상함을 느끼곤 하는데, 요즘은 참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너무 좋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 바쁜 하루 속 힐링이 되어주고, 힘들 때면 옆에서 묵묵히 걸
을 지켜주는 동기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딱히 거창한 무언갈서로 주고받지 않아도, 나를
믿어주고 좋아해주고 챙겨주는 동기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힘이 됩니다. 아침에 눈
을 뜬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 보내며,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힘들 때는 걸을 내어주고, 행복할 땐 같이 웃어주는 동기들이 있다는 것이 저의 큰 복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분한 복을 누리고 있어 감사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렇게 나를 채워주는 내 사람들을 위해 더 잘해
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고 꼭 집어내지 않아도, 저에게 걸을 내어주고 마음을 나눠준 모든 동
기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오늘도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꼭 같이 오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8중대 58기 김지수

To. 8중대 2소대 3분대원들에게
도균이, 채민이, 혁이, 수용이, 원섭이 너희가 생도대에 넘어온 지 벌써
1달이 다 되어가네. 1달이라는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

분대장이랑 부분대장이 너희에게 신경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 인퇴는 지 같아서 걱정이 많아.
그래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 너희가 앞으로도 그 모습
계속 잘 유지해 줄 거라고 믿어.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우리와 같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칼럼 I

새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날갯짓을 하기 때문이다

매해 1월 충성기초훈련부터 시작해서 4월 중간고사에 이르는 시기까지 청운(靑雲)의 꿈을 안고 입교한 많은 청년들이 저마다의 사유로 인해 군문(軍門)을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목도(目睹)하였다.



중령 최재호
교학과장

이 세상에 쉽지 않은 일이 없겠지만, 특히 군(軍)이라는 조직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직한다는 것은 남다른 각오가 있어야 하기에 어렵게 내린 선택을 뒤로 한채, 군문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 더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

예전 위관 시절에는 생도들과 나이 차가 많지 않아서인지, 꽤 많은 생도가 진로문제로 나를 찾아왔었던 기억이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 외로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자퇴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 같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전수대학교는 다른 전공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 같다.

하지만 반대로 대학 시절까지 엘리트 체육인으로서 생활하다 어려운 생도 생활을 잘 극복하고 졸업 시에는 생도들을 대표해서 졸업장을 받는 사례나, 오랜 해외 생활 속에서도 낯선 환경을 잘 극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및 임관하는 예도 꽤 많이 보았다.

논어「학이(學而)」편에 「習 鳥數飛也 學之不已 如鳥數飛也 : 익히는 것은 새가 여러 번 날갯짓하는 것이다. 배움이 그치지 않는 것은 새가 여러 번 날갯짓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다. 새가 날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개를 움직이듯,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것 또한 생활처럼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새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같다고 생각한다. 즉 ‘死則休 : 죽는 것은 즉 쉬는 것이다. 쉬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라는 경구와 일치한다. 어린 새가 날갯짓을 배워 어른 새가 되듯이 생도 기간은 힘들겠지만, 날갯짓을 배우는 기간이 아닐까? 이 기간 동안 힘찬 날갯짓을 배운다면 더 멀리 더 높이 날아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하루아침에 학문의 성과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볼 만 하다. ‘人能一日有一日工夫 一月有一月工夫 則自然漸進矣 : 사람이 능히 하루에 하루의 공부를 하고, 한 달에 한 달의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자연히 점차 진보할 것이다.’

조선시대 대학자인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의 『채신잡록(采薪雜錄)』에 나오는 구절이다. 『채신잡록』은 책의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이수광이 오랜 기간 병상에 있으면서, 살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모아 반성할 거리를 글로 기록한 것이다.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하루의 공부를 하지 않고, 한 달의 학업성과를 비뚤으며, 또는 한 달의 공부를 하지 않고 한 해의 학업성과를 바라지 않았는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훌륭한 농사꾼은 흉수나 가뭄 때문에 경작을 그만두지 않고, 어진 장사꾼은 밑지는 것 때문에 장사를 그만두지 않으며, 사군자(士君子)는 빈궁한 것 때문에 도둑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생도들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핑계로 국가와 국민에게 한 신성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다. 완락(玩樂)이로다!

칼럼 II

평균적 인간의 조직적 훈련

“군대는 노력으로 강력해지고, 계엄으로 무기력해진다.”(4세기, 베게티우스) 생도들은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 사관학교를 선택했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사명감과 최고의 군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이곳 충성대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령 문용득
인문학처
군사사학교수

4월 즈음이 되면 새내기 대학생이 대학과 전공을 다시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 생도들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고민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하튼 그 고민의 결과가 ‘생도는 나에게 필연이고 장교는 장차 나의 사명’이라면 이제는 충성대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고 단련해야 할지에 대한 다짐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과 충돌』이란 책의 저자로 유명한 사무엘 P. 헌팅턴(1928-2008) 교수는 약 70년 전 「군인과 국가」라는 저서를 통해 군사전문성으로 무장된 전문직업군인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군인의 전문성은 국가 존망과 인명 살상이라는 전쟁의 특수하고 복잡한 상황 아래 승리를 보장하는 핵심요소이며, 군인의 전문성은 사회에서 최고 수준을 요구하는 의사나 법률가의 전문성과 비교해도 요구되는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 이 전문성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단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1806년 예니전역에서 나폴레옹 군대에 패한 프로이센은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한 군사혁신의 일환으로 새로운 장교임관 제도를 만들었다. 핵심 내용은 장교에게 필요한 자질로서 평시 교육을 통한 전문 지식의 함양과 전시 상황에서의 탁월한 용기와 이해이다. 이러한 자질을 갖춘 보통 사람이 신분적 차별 없이 누구나 군인으로서 최고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문을 연 것이다.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전쟁 천재’ 나폴레옹에게 패한 프로이센은 자국 전쟁 천재의 출현을 기대하기보다 보통의 프로이센인들을 특수한 훈련, 조직 및 의무에 헌신시킴으로써 우수한 장교를 중심으로 한 유능한 집단을 육성시키는 데에 주력했다. 전쟁 천재의 부재가 프로이센인으로 하여금 ‘평균적 인간의 조직적 훈련’

이라고 하는 방법을 찾게 하였던 것이다. 프로이센 장교들은 자질을 갖추기 위해 혹독하고 치열하게 학습하고 단련하였다. 이 전문직업군인 제도는 나폴레옹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프로이센이 60년 만에 대프랑스전쟁(1870-71)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다. 이후 프로이센의 전문직업군인 제도는 대부분 군사 선진국으로 확산하였고, 오늘날 우리 군도 유사한 개념의 직업군인으로써 장교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신체를 단련하는 목적은 장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함이다. 장교의 자질이란 전쟁(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심히 공부해서 지적 수준을 키워야 한다. 클라우제비츠의 ‘지성’, 손자의 ‘지피지기 지천지지’, 오자가 강조한 ‘문무겸비’는 모두 군사 지휘관의 지적 능력을 강조한 표현이다. 더불어 장교는 용감해야 한다. 심신을 단련하여 육체적 위험과 고통을 극복하는 물론, 지휘관으로서 전장에서 감내해야 할 책임에 대한 위험도 이겨내야 한다. 승리를 담보하는 지휘관의 결단력은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불확실하고 위험하며 수많은 우연과 마찰이 존재하는 전쟁 상황에서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통찰력과 그 가운데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심하는 능력은 끊임없는 학습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전쟁 천재라 불리는 나폴레옹도 사관생도 시절부터 전쟁터의 지휘관이 되어서까지 끊임없이 공부하였다. 하물며 평범한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최고유능한 지휘관이 되고자 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무모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며, 곧 국가와 국민, 나와 내 전우를 지키기 위함이다.

저명인사칼럼 I

리더의 조건, 3력을 길러라

실력만 있으면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과연 그럴까? 세상을 둘러보면 실력이 차고 넘치는데도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공부도 잘하고 자격증을 여러 개 딴 사람이 취업이 안되는 경우, 스펙이 좋고 시험 성적도 좋은데 승진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하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운이 따르지 않아서라고 여긴다. 과연 그럴까?



윤은기
前 중앙공무원교육원장
現 한국합업진흥협회 회장

필자는 평생을 통해 수많은 지도자와 교류하며 살아왔다. 매일 두 시간씩 진행하는 일일 생방송을 10년 이상 맡아서 수많은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명강사 소리를 들으며 수십 년째 강의를 해오고 있고 대학 총장 시절에는 유명 기업인과 전문가들을 모셔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수료한 분만 천 명이 넘는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교육을 책임지는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몇 년간 하면서 우리나라 공무원 대다수를 만나며 과정마다 직접 강의, 워크숍, 현장답사도 많이 진행해보았다. 이런저런 과정을 겪고 성공한 인물들을 많이 만나면서 필자가 깨달은 게 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력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3력이다. 그렇다면 3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실력, 담력, 매력이다.

실력은 자기 직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다. 실력이 있어야 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리더가 되려면 일단 본인의 업무에 관한 실력부터 확실히 다져야 한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부하나 동료에 따르지 않는다. 상사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실력이 부족하면 리더십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자체를 잃게 되는 것이다.

담력은 굳건한 마음을 말한다. 결정적인 기회나 위기가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여 기회를 살리고 위기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다. 평소에는 담력이 숨어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담력이 있어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나라를 구한 국가지도자나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은 모두 이 담력이 뛰어난 인물들이다. 담력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갈고닦아서 기를

수 있다. 먼저 마음의 힘은 양심을 길러야 한다. 마음이 바를 때 정정당당한 태도와 담력이 나온다. 예부터 자기 수양이란이 마음공부를 의미한 것이다.

매력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다. 한자 매력(魅力)은 도깨비 매이다. 도깨비처럼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어원에서 나왔다. 매력의 영어 단어인 Attraction도 사람의 마음을 '이끈다'는 어원에서 나왔다. 매력은 얼굴이 잘생겼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보이는 매력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작은 거인', '날개 없는 천사' 등은 보이지 않는 매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붙는 찬사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매력의 근본은 감성력이다. 사물이나 사람의 감성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매력이 길러진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사회일수록 매력의 힘은 더 중요하다.

사관생도는 장교가 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나라의 인재다. 임관하고 나면 상관을 모시고 부하를 통솔해야 한다. 군에는 현역군인도 있고 군무원도 있다. 남녀가 함께 근무한다. 민간군 협업을 해야할 경우도 많이 있다. 과거에 비교해 그만큼 다양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달라진 군에 근무하면서 실력과 계급만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는 실력, 담력, 매력의 3력을 길러야 한다. 3력을 갖춘 리더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잠재력과 팀워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이 3력을 갖추어 자유 대한민국의 국방안보를 이끄는 리더가 되기를 기대하며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저명인사칼럼 II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금언 중의 한 가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는 말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서 반드시 성취하라는 강압적 압력의 의미도 숨어있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된다.

과연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는 말을 인생의 금언처럼 믿고 살아야 할까.



유영만
지식생태학자,
한양대학교 교수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는 말을 믿고 실제로 한계에 도전하다 죽을 뻔한 체험을 하고 나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려고 한다.

2012년 사하라 250Km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한 적이 있다. 사하라 사막만 해도 심장이 뛰는데 거기서 마라톤을 뛰겠다고 생각하니 심장은 더욱 거세게 박동하였고, 폭염을 등지고 마라톤 뛰는 장면을 상상했던 순간이 있었다.

상상하는 대로 미지의 세계는 현실로 다가온다. 실제로 사하라 사막에서 마라톤을 뛰기 위해 아파트 34층을 배낭 10kg을 짊어지고 오르내리는 연습도 하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한양대학교까지 왕복 56Km를 휴일에 달리기도 했다.

드디어 심장 뛰는 마라톤을 뛰기 위해 이집트 카이로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다시 사하라 사막까지 버스를 타고 간 다음, 하룻밤을 텐트에서 보내고 6박 7일간 이어지는 250km 대장정을 시작했다.

첫날과 둘째 날 힘겨운 사투를 거듭하며 무사히 완주를 마치고 3일째 되는 날, 모래 언덕을 기어오르다 129Km 지점에서 탈진 상태를 이겨내지 못하고 안타깝게 레이스를 포기하고 말았다.

포기하기 전에 잠깐 고민했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투지한 노력이 너무 아까워서였다. 하지만 몸은 머리의 명령을 듣지않고 제 맘대로 포기상태로 들어갔다.

흔히 마인드로 신체를 통제함으로써 사람은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극한의 한계상황

에 다다랐을 때 몸은 머리의 명령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인드의 통제권역을 벗어난다. 체력은 고갈된 상태에서 머리는 계속 몸에게 명령을 내리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 꿈에 그리던 사하라 사막 레이스를 포기하고 필자는 이런 명언을 남기고 돌아왔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에 도전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한계상황에 직접 도전해보면서 몸으로 한계를 느낄 때, 과감하게 포기해야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린다는 의미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는 말을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레이스를 계속하다 죽을 수 있음을 몸으로 깨달았다. 한계상황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는 명언은 한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망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신념도 때로는 통념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한계는 책상에서 머리로 알 수 없다. 몸으로 도전해보야 한계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달은 소중한 교훈이었다. 만약 내가 한계에 도전하는 체험이 없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는 금언을 철칙처럼 믿고 살아갔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좋아하는 일이지만 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의 능력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방법은 한계에 도전하는 길이다. 마찬가지로 나의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다른 가능성의 문이 있는지를 아는 것도 한계에 도전하는 순간이다.

북한의 ICBM 도발 배경, 목적 그리고 전망



소령 문은석
사회학석 정치외교학과장

북한이 3월 24일 ICBM 실험을 재개하였다.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북한은 신형 ICBM인 화성-17형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나, 한미 당국은 기존 화성-15형을 실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발사체 유형과 관계없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도발을 자행한 것은 분명하다.

북한 신형 ICBM 화성-17형 분석 추정 내용

- 탄두부: 다탄두 미사일 형태로 진화. 미국 ICBM '미니트맨-3'과 닮은 모습. 후추진체로 불리는 PBV(Post Boost Vehicle) 식별
- 탄두 분리: 목표지점 상공 탄두부에서 핵탄두 2~3개 분리되어 목표를 파괴
- 3단 분리: PBV에 달린 로켓 정화, 목표지점 상공까지 운반 후 우주공간에서 분리
- 2단 추진체 분리
- 1단 추진체 분리

발사개요

- 공개시기 2020년 10월 당창건일 열병식
- 이동식발사차량 11축 22륜 (바퀴 22개)
- 엔진 3단(1단: 백두산트윈 엔진 2세트 결합, 2단: 트윈 엔진 1세트, 3단: 고체엔진 모터)
- 사거리 1만 3,000km 이상(미국 본토 타격 가능)

직경 2.3~2.4m

반중빈 장예진 기자 20220311

북한의 신형 ICBM 화성-17형(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20311001300044>



북한의 도발로 인해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한 모라토리엄(핵·미사일 발사실험 유예: moratorium)은 공식적으로 파기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 직후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하였고, 한반도 정세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ICBM 도발 배경

북한이 ICBM 도발을 강행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로 장기화된 북·미관계의 교착상황을 들 수 있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가까이 지속된

교착상황은 북한에게 전략적으로 손해의 기간이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었지만, 그에 비해 핵 능력을 충분히 증강하지 못하였다. 교착상황이 길어질수록 북한의 입지는 점차 좁아졌다. 북한 지도부에게 이러한 상황은 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입장에서 이러한 교착국면을 타개할 적기가 도래했음을 들 수 있다.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시하는 중동과 유럽에서 연이어 중대한 안보 도전 요인이 발발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가 위치한 유라시아 지역은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장(戰場)이다. 이 지역에 바이트 행정부가 전략적 관심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북한은 호기로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유라시아의 위기 과정에서 조성된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갈등 구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을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존재감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들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정부 등장 전후 예외 없이 핵 능력을 과시해 왔다. 아직 구체적인 대북정책 내용을 확정하지 못한 바이트 행정부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남한의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2022년 상반기는 자신들의 핵 능력에 대한 가치와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고 3월 25일 보도했다. (출처: 조선중앙통신 / 조선일보 기사)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2/03/25/SOCONGHRNBCHAYN3OGBLRMQD4/

ICBM 도발 목적

그렇다면 북한이 ICBM 실험을 통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도발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첫째, 군사적 목적으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정권 수립 후 북한은 핵전력 증강 사업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2017년 11월 말 북한은 ICBM과 SLBM의 제조와 운용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였다. 이후 북한은 4년 동안 미국을 직접 겨냥한 핵전력 고도화 노력 대신 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능력 증강에 집중했다. 이에 비해 남한은 공군력과 미사일 능력 중심의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남한의 전력 증강에 북한은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군력과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노력해야 했지만, 능력과 재원의 부족으로 공격용 미사일 개발 등 비대칭 전력 강화로 전략을 수정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난 4년간은 남한대비 재래식 군사력 균형의 열세가 더욱 심화된 시기였다.

둘째, 외교적 목적으로 미국을 향한 강압 전략(coercion strategy)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ICBM 실험이라는 핵 강압을 통해 미국의

지와 태도, 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자신의 핵 능력을 맹신하고 있는 북한은 2018년 미국이 2차례 정상회담에 응한 이유가 핵 강압 전략의 성공 때문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이러한 핵 집착 효과(endowment effect)는 이후 북미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즉 협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면을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셋째,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대내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 타결에 실패한 이후 대북 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 등 3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김정은 정권은 이 위기를 돌파하는 주요 수단으로 핵 능력 강화를 통한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ICBM 도발을 공식적으로 화성-17형으로 강조한 것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2020년 공개하였던 새로운 무기체계의 '실존'을 북한 주민들에게 더 늦지 않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고통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자들'을 겨냥한 더욱 강력한 무기가 실존할 뿐 아니라 실제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함으로써 김정은의 강력한 지도자상을 확립하고자 했을 것이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17형 비교

	화성-15	화성-17
동글고 몸통	탄두부	다탄두 탑재(핵탄두 2~3개), 후추진체 PBV식별
사거리	9,000~13,000km	15,000km 이상
길이	21m	22~24m
직경	2m	2.4m
추진체	백두산 엔진 4~6기	2단 액체 엔진 신형 추력 향상
엔진	백두산 엔진 2기	1단 엔진 백두산 엔진 4기 (2쌍)
이동식발사대	9축 18륜	11축 22륜
최초 발사 시기	2017년 11월	2022년 3월 5일

화성-15형과 화성-17형의 비교(출처: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32713580003593>

향후 전망

북한의 이번 도발로 북핵 정세의 교착상태는 더욱 장기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화는 북한에 매우 불리하다. 제재로 인한 경제 상황의 악화가 가중되어 군수 분야에서 가용할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는 결국 남한과 한미동맹에 맞설 수 있는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은 공격용 미사일 능력의 집중 강화로 열세를 극복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공세를 거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북한이 도발을 통한 한반도 위기 상황을 고조시키는 데 성공하더라도 북한이 의도한 만큼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우선 미국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남한의 새 정부 또한 힘을 통한 대응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고의로 화성-17형으로 가장한 기만책이었다면 이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변경 가능성을 오히려 낮추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의 출발은 북한의 핵 도발 중단이다. 북한의 핵 능력 강화는 비핵화를 위한 타협을 방해한다. 타협이 지연되면 필수록 북한의 피해는 가중되고 전략적 입지는 더욱 축소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장기적인 대북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이 강화되고 한미동맹의 군사적 억제력이 강화되어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 불리한 여건만 형성될 뿐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열쇠는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 의지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2 트렌드 노트

블로그의 재발견, 나의 재발견



최재연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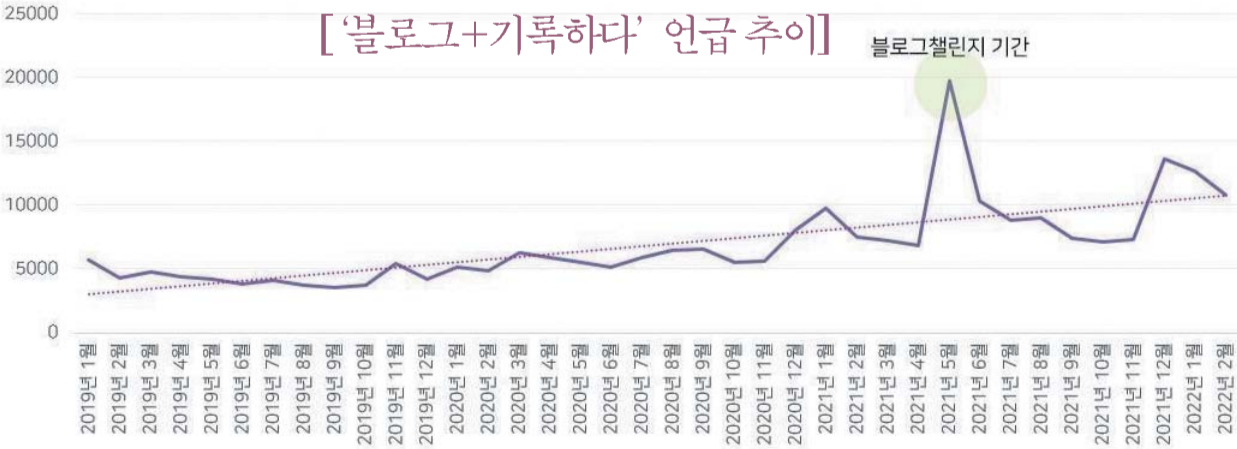
맛집 정보를 찾아볼 때, 사고 싶었던 제품의 실사용 후기를 찾아볼 때 우리는 '초록창'이라 불리는 네이버에 검색을 하거나, 일반 사람들이 남긴 블로그 글들을 찾아 보곤 한다. 하지만 과거에는 유용한 블로그가 외면받아 온 역사가 있다. 실제 필요한 정보는 없이 단편적인 정보만 늘어놓는 말투의 일명 '블로그체'가 만연하게 되고, 블로그를 대표하는 스티커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기 시작했을 때부터다.



출처: 네이버 라인스토어 폴짝폴짝 라인캐릭터 2종

블로그 광고는 '믿거(믿고 거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혹평을 받았던 블로그는 점차 인기가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실용적인 정보를 얻고 싶었던 일반 사용자들이 전문 블로거들의 광고에 피로해졌을 때쯤, 블로그를 새로운 용도로 쓰기 시작한 젊은 세대의 행동이 관찰되었다. 바로 '기록'이다.

이미 2019년 말부터 블로그에서 '블로그+기록하다'라는 언급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였고, 2020년 12월부터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은 2021년 5월 시행된 네이버 블로그 챌린지 #오늘일기 이벤트였다.



출처: 생활변화관측소, 블로그, 2019.01.01.~2022.0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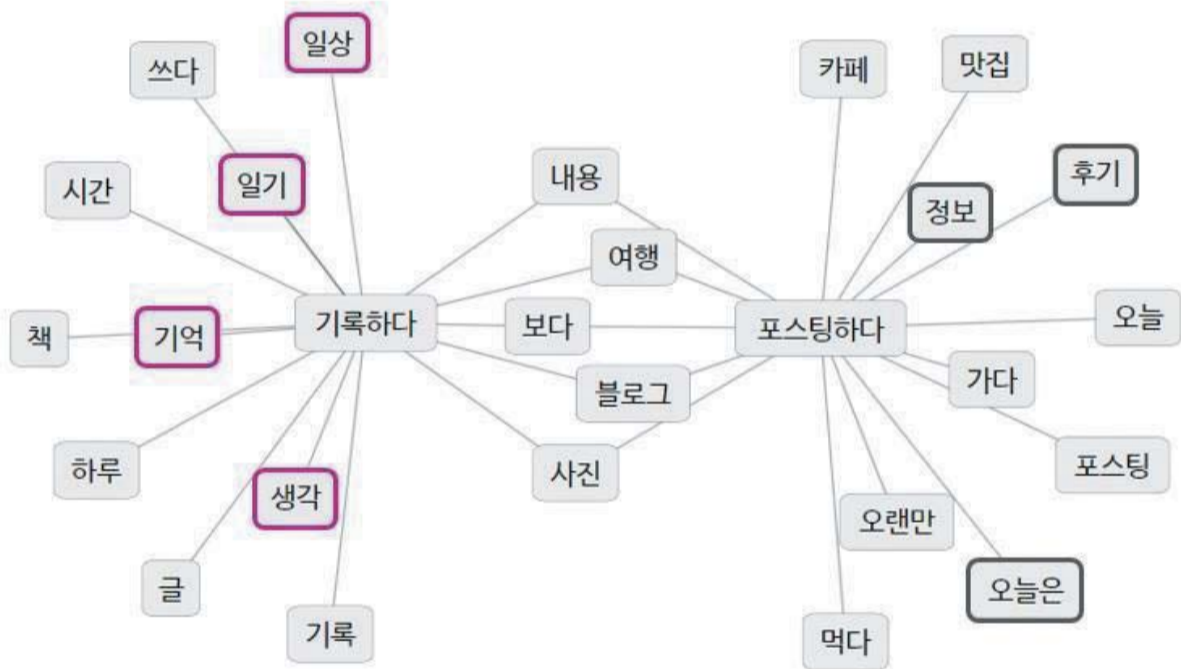
연속으로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주는 블로그 챌린지 이벤트는 너무 많은 참여자가 몰려 이벤트를 중단했다가 참여자들의 원성을 사며 재개했던 해프닝도 있었지만, 블로그에 기록하는 행위가 언급되는 추세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블로그에는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기록할까? 2020년부터 '평범한 일상'이 '바쁜 일상'을 역전했

고, '대학생 일상'이 '육아 일상'을 역전했다. 즉,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바쁜 일상보다 평범한 일상에 대해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대학생들이 블로그에서 일상을 더 활발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인 것이다.

블로그에서 일상을 말하게 된 데에는 '기록하다'라는 키워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깊다. 나이키 런 클럽(Nike Run Club) 앱을 이용해 매일 러닝 기록을 남기고, 미라클 모닝 챌린지를 하면서 기상 시간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기록이 관찰되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시간을 주도적으로 잘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MZ세대는 과도한 경쟁 시대를 살면서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회적 배경이 있다. 그래서 단순히 결과와 스펙만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과정에 담기는 진심과 열정을 자신만의 고유한 경쟁력으로 여기고, '열심히', '꾸준히' 하는 삶이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다.

['기록하다' vs. '포스팅하다' 연관어 Top15 네트워크]



출처: 생활변화관측소, 블로그, 2018.01.01.~2021.08.31.

실제로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포스팅하다'라는 단어로 주로 표현되었지만, 최근에는 '기록하다'의

블로그의 재발견은 나의 일상을 돌아보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면서 스스로를 알아가는 '나의 재발견'인 셈이다.

'블로그 ○○기록'으로 대표되는 일상 콘텐츠가 젊은 세대, 특히 Z세대에게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누구나 겪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라는 점과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솔직한 이야기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소위 '요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자신만의 세계를 능동적으로 구축하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따라서 솔직한 일상을 기록하는 것에는 자신이 정말로 유용하게 쓰고 있는 물건,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고 지지하는 가치가 담긴 브랜드들 또한 자연스럽게 포함된다. 역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일상 속에 기록하고 싶은 브랜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소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날 것 그대로가 담긴 이야기가 바로 Z세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인 것이다.

정리하자면 블로그의 부흥으로 보는 삶에 대한 태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 기준에서 개별적 기준으로. 둘째, 허황(올로)에서 현실(습관, 기록)로. 셋째, 감각과 이미지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의미로. 나는 삶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싶은가?

손 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Mydata)

정보관리를 위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성경 희(‘주호선생’, 리얼스탁애널리스트)



4차 혁명으로 IT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정보의 저장량이 마이크로 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18개월마다 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을 넘어서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보의 교류 방법과 전달 속도도 빨라짐에 따라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수용 능력과 양을 바탕으로 우리는 정보가 자산이 되고, 삶에서 불가피하게 접하게 되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다.

‘데이터 3법’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가명(假名) 정보 데이터를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감독 권한을 개인 정보보호위로 이관	-가명 정보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활용 -가명 정보 주제 동의 없이 이용·제공 허용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각광받으면서 국가 차원에서 관련 법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에 따라 나뉘어 있어 규제가 중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막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개념으로 ‘마이데이터(Mydata)’ 라는 용어가 활용되며 산업 속에 도입됐다.

1. 마이데이터(Mydata)란?

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데이터를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주도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즉, 데이터의 주인은 개인이며, 그 개인의 데이터 본인이 직접 관리할 것이고, 제3금융권에 그 정보를 제시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용 정보, 은행 기록뿐만 아니라 쇼핑 데이터, 통신료 등 곳곳에 흩어진 데이터를 한 화면에 모아주는 것이다.



각 금융권끼리는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는다. A 은행에서 쌓인 데이터는 A 은행에서만 볼 수 있고, B 은행에서 쌓인 데이터는 B 은행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각 금융권의 데이터가 흩어져 있어서 한 번에 모아보는 것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금융 상품에 대한 효율적인 비교가 어려웠고, 은행 잔고를 보려면 각 은행에 찾아가 따로 잔액을 확인하거나 각각의 은행 어플을 켜고 확인해야 했고, 대출을 할 경우에는 그것의 한도나 금액마저 따로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를 통해 은행 계좌나 카드 사용 내역, 금융 투자 상품을 한 곳에 모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2. 마이데이터(Mydata)의 보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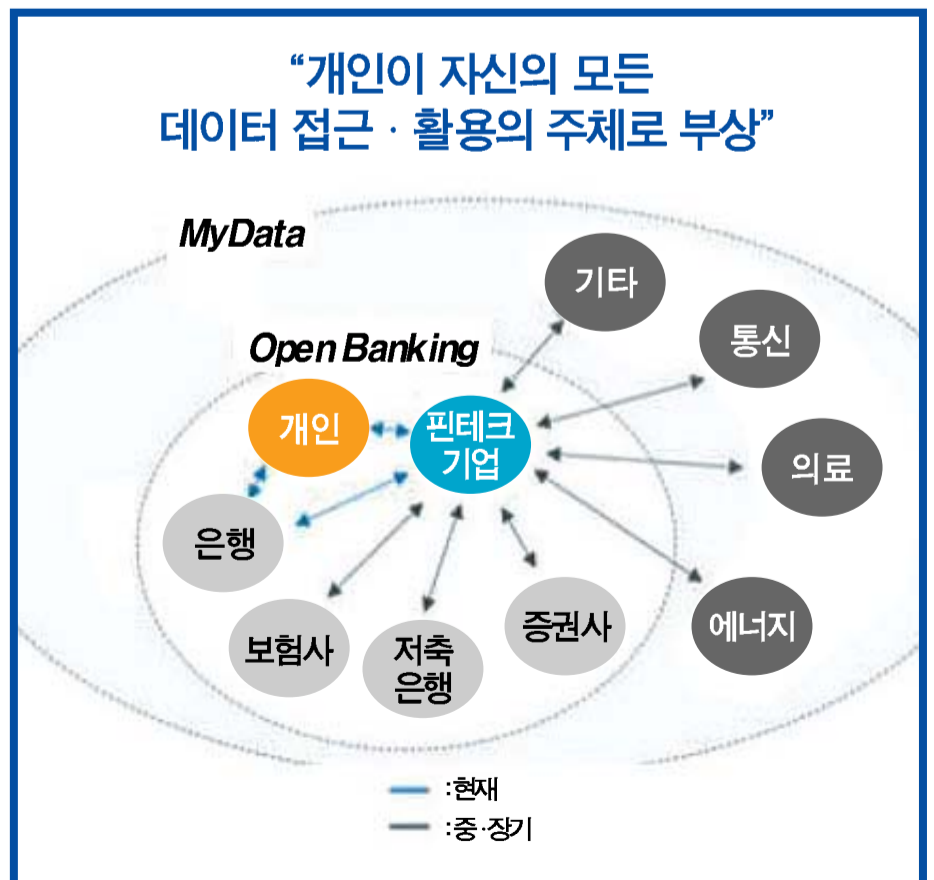
금융 정보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이데이터는 오픈뱅크 시스템과 비교될 수 있다. 2019년 10월에 오픈뱅크가 시행되면서 우리는 각 은행의 계좌들을 모두

한곳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오픈뱅크 시스템은 보험, 대출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서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타 금융기관 웹사이트에 대리 접속하여 ‘스크래핑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해킹 시 중요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필요 이상의 정보 접근이 가능해 우리의 소중한 정보가 악의적 행위로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마이데이터는 API 방식이 도입되어 있다. 이 방식으로 중요정보를 직접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권한증표라는 토큰으로 관리된다. 이 때문에 해킹 시에도 토큰의 폐기나 사용에 대한 접근과 통제 가능하여 보안상으로 높은 이점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부여한 권한 내에서만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정보 접근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보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중 유럽연합(EU)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마이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관리의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한 곳에서 쉽고 편하게 나의 자산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나의 금융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종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가장 적합한 금융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시중의 금융기관도 정보의 불평등성에서 벗어나 마이데이터 시스템 안에서 공정한 정보량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다.

핀테크의 발달은 이처럼 효율적이고도 안전한 시스템을 탄생시켜왔다. 정보가 한 곳에 모여 있는 시스템이 보안상으로도 매우 뛰어난 것은 과학기술이 모순을 극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정보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마이데이터에 주목해야 한다.



3사 27기들의 특별했던 30주년 기념행사



▲ 임관기념 조형물 단장식

올해 임관 30주년을 맞아 3사 27기 동문들이 학교를 방문하는 특별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한동주(14기) 前 총동문회장과 김문중(21기) 대구 동문회장, 전태환(27기) 동기회장을 비롯해 27기 김호복 장군(52사단장), 김관수 장군(동원참모부장), 곽열복 장

군(사이버작전센터장) 등 전국 각지에서 27기 동기생과 가족 297명이 참석했다.

이번 30주년 기념행사는 27기 동기회 임원진 10명이 자리한 가운데, 충훈비 참배 및 기념 조형물 단장식으로 시작했다. 이어 충성관에서 지난 30년을 함께해온 27기 동기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행사를 진행했다.



▲ 학교장 접견

학교장(소장 고창준)의 환영사, 축하 영상 시청, 감사장·표창 수여 등의 식순을 진행하며 모처럼 동기들과 소중한 추억을 나누고, 보다 발전적인 동기문화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학교 장병들과 생도들의 환영을 받으며 충성의식을 관람했다. 특히, 이날

은엔데믹 시대를 맞아 시행한 생도 부모 초청행사 1,700여 명의 생도 가족들과 함께 충성의식을 관람하며 임관 3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충성의식이 끝난 후에는 학교 발전기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후배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태환(27기) 동기회장은 “이번 30주년 행사를 통해 군을 위해 헌신했던 동기들과

과거를 함께 돌아보면서 마음을 한데 뭉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는 30년을 넘어서 40년, 50년, 60년도 동기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바라보고 싶다”고 기념행사에 대한 의미를 전했다.

한편, 3사 27기는 지난 2020년 임관 30주년을 맞이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자리에 모이지 못했던 아쉬운 마음을 이번에 특별했던 3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주무관 길진규



▲ 27기 동기회 1부 행사



▲ 충성의식 행사후 단체 기념사진

내 인생의 후회 없는 선택!

동문(同門)의 소리

㈜에어콘테이너로지스틱스 차장 배상훈(3사 41기)



2004년 1월 어느 날,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생활관에 웅기종기 모인 우리. 갑자기 사이렌 방송이 울리고 문을 박차고 고향을 치는 39기 선배님.

“현재시간 00분, 1분 안에 입고 있는 옷을 벗고, 관물대의 전투복으로 환복한다. 실시!!”
“귀관, 관등성명 안 하나? 앞드려!”

그렇게 우리는 치열한 훈련이 시작되고, 점점 사관생도가 되어갔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기초군사훈련, 생도 생활, 공수, 유격 훈련 등 2년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임관을 목표로 절제, 끈기, 용기, 노력, 동기와의 끈끈한 우애는 어느 조직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정말 생도 과정만의 특별한 배움이라고 생각했다.

몇 년 전 누군가에게 외부의 사람들처럼 대학교 캠퍼스 낭만에 대한 부러움은 없었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필자는 캠퍼스 생활은 1, 2학년 동안 충분히 만끽했고, 일반인이 겪어보지 못할 생도 생활은 행복하였으며 다시 돌아와도 육군3사관학교를 선택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하지만 OAC(대위 지휘참모과정)가 끝나고 대위 2년 차일 때 군 생활에 슬럼프가 왔다.

“나는 무엇이 중요한 사업일까? 도대

체 무엇 때문에 군 생활을 하는 것인가?” 많은 고민과 고뇌 끝에 군인 본분에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고 나는 고민 없이 바로 인생의 진로 전환을 결심했다. 이후 4년의 군 생활 동안 틈틈이 물류 석사 학위 취득을 하며 사회로 나갈 준비를 병행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끝내 2016년 5월, 물류계통 중견기업에 입사하여 현재 해외주재원 법인장을 마치고 본사에 차장으로 근무 중이다. 사관생도들도 미래에 군 생활을 지속하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 군을 떠나 진로를 변경하는 인원들도 있을 것이다.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생도들에게 공통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다.

첫째. 행복한 자기주관의 인생을 살자. 졸업하고 임관 후에는 각자가 추구하는 행복한 인생이 있다. 그것이 결코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무엇을 선택하든 각자의 자유다. 다만, 행복한 자기주관의 인생을 살기 위해 어느 분야든 끊임없는 노력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현재의 당면 과제는 충실한 생도 생활 및 임관인 것을 잊지 말자. 지금은 생도 과정에서 모든 것을 익히고 배워 훌륭한 장교가 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생도 생활이 힘들다,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여러분들은 본인이 선택한 길이 아닌가? 어떤 힘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여 임관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임관 후에 해도 늦지 않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며 현재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자.

셋째. 육군3사관학교는 후회 없는 선택이다. 생도 생활을 통해 습득한 리더십, 체력증진, 사람 간의 처세술, 지휘체계 등 다양한 좋은 영양분들은 군 조직은 물론 사회의 어디서든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일반인들과는 다른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다. 사회에 나가서도 웬만큼 규모 있는 조직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교육하는 곳이 거의 없다. 단언컨대, 생도 생활의 경험은 언제 어디서나 성공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가끔 유튜브에 사관생도 분열을 검색하여 낚이 나간 사람처럼 반복해서 시청하고 있는 나를 종종 발견한다. 사열대 단상을 통과할 때 ‘우로 봐-!’는 아직도 나에게 희열을 준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생도 시절 좋은 추억을 떠올리면 갑자기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극복하는 모습을 종종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생도 생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들, 군과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선배, 후배들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한다.

이석재 중위(55기), 총동문회 장학금 전달식

지난 3월, 총동문회는 52기 송은혜 대위의 뒤를 이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 발탁되어 3사인의 위상을 드높인 55기 이석재 중위에게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석재 중위는 총동문회에 감사함을 표하며 “모교에서 받아오기만 했던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생활하겠다”며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여 또 다른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장교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3사총동문회



▲ 김기중 총동문회장대리, 17기)과 이석재 중위

학교 발전재단 소식

2022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2.3.1~'22.4.30까지 기부현황입니다.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총 기부액)

총 자산 86억원(2022.4.30 기준)

■ 단체/우인

영천국민은행 1,000(1억700), 27기 동기회 1,000

■ 학교발전 동창 특별기부자('22.3.1~'22.4.30 기부현황)

김종학(우인) 100(100), 김의진(육사#46) 10(40), 김호길(육사#48) 2(61), 두석주(육사#51) 2(200), 황수현(육사#51) 2(10), 이강경(육사#54) 2(4), 이우진(육사#54) 2(72), 조소근(육사#56) 2(145), 변용성(육사#58) 2(111), 이규현(육사#58) 2(105), 이주실(육사#58) 2(90), 김대영(육사#59) 2(178), 김진찬(육사#61) 2(75), 홍희중(육사#61) 2(107), 홍인재(육사#65) 2(40), 문준호(육사#67) 2(51), 조지웅(육사#68) 2(12), 권성진(육사#69) 2(38), 한덕수(학군#26) 2(117), 남기웅(학군#29) 2(22), 구희곤(학군#32) 3(145), 서필석(학군#34) 2(22), 임문태(학군#34) 2(16), 송경재(학군#37) 2(134), 이정훈(학군#38) 100(100), 정우람(학군#46) 2(28), 이세훈(학군#48) 2(33), 홍현신(학군#48) 2(30), 최재호(학사#29) 2(134), 이준수(학사#35) 2(118), 임도현(학사#54) 2(113), 구주현(학사#55) 2(36), 임채훈(학사#55) 1(59), 박수영(학사#56) 2(28), 성현애(학사#56) 2(56), 강진선(학사#57) 2(22), 심정현(학사#58) 2(44), 김형태(간부#22) 2(64), 윤경주(간부#26) 2(24), 강찬영(군중#61) 2(40), 최윤정(간사#38) 2(49), 송소연(간사#58) 2(30), 이대희(준위) 2(39), 김소현(여군#46) 2(29), 류재운(군무원) 2(202), 안영주(군무원) 2(52), 이수진(군무원) 2(20), 정혜란(군무원) 2(31), 정윤혁(신원미상) 5(5)

■ 졸업·재학생도 부모('22.3.1~'22.4.30 기부현황)

▶ 졸업생 부모(졸업기수/관계)

조경태(#45 황정태 모) 10(850), 홍근식(#46 홍대희 부) 4(126), 백인숙(#47 모) 2(17), 임민택(#47임동선 부) 70(500), 성동모(#50 성열환 부) 4(222), 안순봉(#51 박상용 모) 20(1,040), 김현미(#52 오치원 모) 3(57), 이영미(#52 황성규 모) 6(322), 정정화(#52 조강현 모) 2(350), 박일심(#53 정필승 모) 3(141), 조정숙(#53 유영빈 모) 2(140), 서완수(#55 서지찬 부) 4(98), 이찬범(#55 이윤성 부) 5(85), 정원섭(#55 정준영 부) 2(126), 송학빈(#56 송용준 부) 2(69), 정희숙(#56 배우희 모) 20(1,260), 조재훈(#56 조성진 부) 20(20), 김혜영(#57 고원석 모) 2(20), 김경남(#57 김민우 모) 2(19), 김근택(#57 김광진 부) 4(42), 김순말(#57 김준모 모) 6(40), 박경석(#57 박찬환 부) 4(52), 양내석(#57 양철민 부) 20(210), 오유미(#57 김주현 모) 4(46), 이동희(#57 박찬환 모) 6(57), 정재현(#57 정유승 부) 2(40), 지마리아(#57 김대현 모) 20(210)

▶ 재학생(4학년/58기)학부형(입금자 성명)

강문찬, 김한영, 김도희, 배범순, 구형보, 양미선, 이기남, 진경화, 최결순, 한만근

▶ 재학생(3학년/59기)학부형(입금자 성명)

김민수, 김애경, 신경희, 안소태, 이주은, 이재상, 최인, 임승남, 장연복, 정신, 정영남, 정원준, 조영희, 최형춘

※ 개인 기부현황은 발전기금 홈페이지(www.kaayf.or.kr) 내기부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졸업생(개인) 참여현황('22.3.1~'22.4.30 기부현황)

- ▶ 1기 김용하(166), 남훈조(21,388), 임근택(286), 최익환(187)
- ▶ 2기 윤경학(5555) ▶ 5기 김영찬(3115)
- ▶ 9기 권영호(10480), 김현기(31,203), 윤지환(6171), 최병학(101,280)
- ▶ 13기 문성덕(20320)
- ▶ 14기 김길영(2106), 김종환(365), 안호(40,2030), 이순진(20,880), 이용진(20340)
- ▶ 15기 김성민(2533), 박경환(2028), 전승일(1020),
- ▶ 16기 심재민(217), 원홍규(6336), 박종진(30276), 유영집(641), 윤영식(10,290), 이영호(2135), 이종우(2168), 황병태(2316)
- ▶ 17기 박종진(30276)
- ▶ 18기 구연덕(2138), 금용백(65), 이기환(233)
- ▶ 19기 김익수(4199), 이경희(2181), 이종형(6277), 이창호(6600), 임영갑(10,190), 홍성식(2203)
- ▶ 20기 김윤희(275), 박권순(4164), 서정열(4499), 서진호(50350)
- ▶ 21기 신철수(541,182)
- ▶ 22기 권순태(260), 김면수(10105), 조태환(4155), 정경호(353), 천병규(10460), 홍성덕(10,221)
- ▶ 23기 김태일(2238), 신영찬(179), 최승환(215), 허경수(4295)
- ▶ 24기 곽종만(468), 권규락(4300), 권오봉(2222), 김도협(2240), 김성래(246), 김지영(10,978), 남용구(5304), 모경원(2235), 문석우(520), 박세철(278), 방성대(2119), 안연준(1102), 이문휘(1100), 정정현(2199)
- ▶ 25기 김남용(2142), 문봉성(2160), 이은진(1058), 장광선(6502), 장무수(257), 전희준(2313), 전창호(10210), 조재희(2131), 홍은표(2207)
- ▶ 26기 고창준(10312), 박창원(38), 신태영(3104), 유근환(344), 이덕우(2135), 이원주(4145), 이태인(478), 임우영(2232), 장용빈(2131)
- ▶ 27기 김관수(103103), 김덕중(276), 김성오(446), 김용범(436), 김지덕(230), 김호복(8289), 나현민(100200), 석수열(253), 우성재(215), 원희은(10285), 이화순(1247), 전태환(1001300)

- ▶ 28기 권승영(129), 권양철(2116), 김진길(288), 김창현(4173), 박용섭(4189), 정월균(252), 서청수(2180), 유정일(244), 윤석찬(2149)
- ▶ 29기 김강식(2253), 김광석(418), 김태영(446), 박성훈(2161), 박태웅(2140), 이상일(2195), 이의규(2123), 임국기(2090), 임성호(2172), 최인섭(2134), 현대식(2158)
- ▶ 30기 김종권(292), 김효성(252), 남진오(263), 이병길(227), 이진(2157), 임상달(2127), 주경호(1121), 홍성범(245), 함민호(2108)
- ▶ 31기 권동호(476), 김민식(4114), 김영태(2189), 김태희(217), 김희영(2233), 염항수(2144), 이재준(2218), 이훈복(256), 최대집(254), 전영민(241)
- ▶ 32기 권관덕(2328), 김희용(2121), 사인우(2143), 안태환(410)
- ▶ 33기 권해욱(636), 김남식(2180), 김상선(4164), 김성근(4160), 김현규(4405), 남석진(2145), 노일(6188), 안경일(2242), 안준영(6143), 이정표(6101), 조재봉(2118), 홍종원(339)
- ▶ 34기 강훈(25), 김기수(2188), 김운성(253), 김홍식(6459), 이무이(2412), 임창훈(288), 정웅민(4206), 정창근(2114), 정준황(264), 조수창(2189), 홍영기(233)
- ▶ 35기 김경철(217), 김수열(277), 박병준(6332), 박상우(193), 박시근(2191), 송명성(476), 이문희(2157), 이호순(634), 임창규(2115), 장춘삼(2152), 전성광(246), 정병삼(10157), 정영석(2113), 정호준(4110), 하중수(233), 한종훈(4383)
- ▶ 36기 김도희(467), 김현(2136), 안경우(6292), 양현승(2123), 이광희(2158), 이규호(2123), 임중수(278), 장세호(2209), 정우철(2144), 조동권(2225), 진연수(2169)
- ▶ 37기 강성봉(215), 김양훈(6261), 김총기(4163), 김흥년(2240), 노진철(2154), 문장권(228), 송석봉(4167), 송용섭(4301), 옥원호(2140), 이관모(2146), 이웅구(476), 이원희(4291), 이희석(2125), 임원철(2161), 전성진(2133), 정우진(278), 정태욱(6128), 정희철(2134), 최정호(246), 최하용(981), 함성규(2111)
- ▶ 38기 김대현(231), 모을하(2234), 문은석(28), 문정민(2124), 문현성(2237), 서성걸(281), 신상운(2135), 이경식(2185), 이정용(4244), 위재익(489), 정하욱(4215), 함기훈(292)
- ▶ 39기 권웅(252), 김동혁(291), 김의진(2133), 김인영(291), 김지훈(4103), 박철근(2127), 송진근(2126), 송찬현(4127), 심운은(296), 양은차(274), 이대하(2219), 이용철(4116), 이준석(283), 장동준(477), 정대겸(234), 최현철(2280)
- ▶ 40기 구자은(4186), 김백민(2208), 김영우(6268), 김우형(422), 김중욱(247), 김형수(2183), 남태근(242), 박상규(260), 박진하(299), 송석준(2144), 유형선(290), 이호연(10728), 이훈석(266), 최창국(2102), 하성남(33)
- ▶ 41기 권영철(273), 김석진(10273), 박한지(2192), 방현욱(283), 손영민(2167), 손종득(2101), 임성은(4133), 전종상(10237), 정기채(2191), 최민규(2129), 최인혁(277), 최지능(2216)
- ▶ 42기 강구현(231), 강재석(2111), 강정희(2160), 공광석(266), 김동우(2134), 김동진(2103), 김용민(270), 박효찬(2159), 박용준(652), 손병현(2178), 송태권(414), 윤희철(2153), 이광호(277), 이기욱(2101), 이승은(2159), 이용학(2163), 정민기(2152)
- ▶ 43기 강민식(4254), 김용태(299), 김민중(2244), 노창래(251), 박희영(267), 배동적(6160), 백두산(4250), 염태섭(252), 이남익(179), 이도훈(2135), 이상민(2150), 이용희(4237), 이준명(288), 이호선(290), 최진호(499)
- ▶ 44기 김대은(2111), 김승돈(410), 김인찬(252), 권용혁(444), 서동준(2146), 염태천(299), 윤병희(2178), 이민재(2138), 이영민(2146), 이희성(4157), 최재근(278), 황재혁(237)
- ▶ 45기 권기호(2141), 김동호(2140), 김성수(4121), 박영일(2141), 박지훈(2106), 신유철(2132), 이인권(287), 이진희(4143), 서석관(6152), 정재현(2143), 정진우(2144), 채희웅(2122), 최충수(2145), 황영호(360), 황승세(2143)
- ▶ 46기 김강연(24), 강승웅(4266), 김대영(247), 김명철(2133), 김정렬(2133), 김정호(2250), 김진용(2167), 김현식(215), 김희준(24), 백인영(2133), 송원상(4216), 오기리(2131), 이진철(2124), 이상운(2133), 이수원(2136), 정종택(6401), 조광연(271), 조수빈(295), 차승우(295), 표상열(2133), 한영민(2133), 홍한표(2124), 황순창(2133)
- ▶ 47~56기 기부현황은 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에서 확인바랍니다. 지면제한으로 부득이 모든 기부자 명단을 기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양해 바랍니다.
- ▶ 57기 강동현, 강주형, 고건호, 고승영, 고승원, 박노진, 권도형, 권민석, 권복선, 권성재, 권태준, 김관용, 김광진, 김근주, 김기환, 김기원, 김기찬, 김도현, 김도현, 김도현, 김도현, 김도형, 김문민, 김동은, 김동진, 김동찬, 김동현, 김민중, 김민규, 김민수, 김민우, 김민우,

김민재, 김민진, 김민혁, 김민현, 김성길, 김성진, 김서연, 김서울, 김선규, 김선용, 김선학, 김성민, 김성은, 김성준, 김성중, 김성찬, 김솔범, 김수민, 김승우, 김승현, 김승환, 김아영, 김영민, 김용섭, 김우식, 김유림, 김유진, 김윤수, 김윤호, 김은혜, 김재운, 김재준, 김재현, 김정민, 김정우, 김정훈, 김제희, 김종민, 김주률, 김주현, 김준모, 김준영, 김준호, 김준희, 김지섭, 김지운, 김지현, 김지훈, 김진아, 김진욱, 김진혁, 김태운, 김태현, 김현우, 김현일, 김현준, 나경채, 남경민, 내정현, 노현우, 노호민, 도규혁, 류인성, 문광모, 문수환, 문창준, 문태운, 문태준, 민경현, 박건호, 박건호, 박근호, 박근준, 박민규, 박보화, 박상운, 박상운, 박상준, 박상주, 박성현, 박세진, 박세혁, 박순우, 박시현, 박영찬, 박종민, 박재현, 박정우, 박정우, 박재범, 박준권, 박준영, 박준수, 박준호, 박지현, 박진영, 박진표, 박찬환, 박창욱, 박철희, 박충환, 박호민, 박효삼, 박희, 배유민, 배유민, 배재섭, 배 현, 배호근, 백승규, 변승환, 변인진, 서기훈, 서대희, 서민성, 설재민, 설현준, 송명환, 송세현, 송승훈, 송윤민, 송희도, 신동철, 신세인, 신승용, 신정원, 신정호, 신희직, 안상식, 안유찬, 안형상, 안형호, 안희중, 양기주, 양철민, 양경혜, 연규림, 오래훈, 오 석, 오솔찬, 유근영, 유성준, 유영재, 유재준, 유호선, 윤다운, 윤상원, 윤정현, 윤준호, 윤호원, 이경미, 이경민, 이기원, 이동욱, 이동익, 이민욱, 이상현, 이상훈, 이선문, 이성운, 이소민, 이수성, 이승욱, 이원희, 이우진, 이원중, 이윤탁, 이은정, 이재원, 이주상, 이주환, 이주혁, 이지수, 이지호, 이진규, 이차영, 이태양, 이평화, 이한별, 이현우, 이현탁, 이현탁, 이흥민, 이흥주, 임승범, 임정택, 임중운, 장세연, 장민규, 장인희, 장주익, 장호진, 전소연, 전이삭, 전재형, 정기영, 정대민, 정동현, 정민기, 정성훈, 정승준, 정용수, 정원준, 정원혁, 정우승, 정우준, 정재문, 정태호, 조경민, 조경찬, 조남진, 조성우, 조민석, 조창용, 조태영, 조해성, 조형진, 조환희, 주상민, 주정민, 조진호, 최경호, 최광우, 최대규, 최문성, 최범규, 최보성, 최승규, 최승연, 최영도, 최영우, 최정학, 최준석, 최준우, 최지우, 최한수, 최현준, 최홍재, 추건호, 팽정민, 편정환, 하민우, 하재우, 하정민, 한동호, 한지수, 허남행, 허웅, 현지섭, 홍석현, 황익석, 황인지, 황희진(각오원), 김대현, 김보선, 김진산, 김태왕, 김현성, 노혁준, 리정현, 배준서, 송인웅, 신민준, 안정민, 오진석, 유정욱, 이동현, 이채범, 이희중, 임형준, 전재필, 한현석, 홍석진, 황찬희(각오원), 김준수, 노승준, 박동민, 박동진, 성분규, 이용성, 이창용, 조용준, 최재호, 허승범(각오원), 김동현, 김민석, 박정학(각오원), 전우준(각오원)

▶ 58기 황영호(642)



국민은행 학교발전기금 총 1억원 초과 기부

4월 8일 재단이사회 개최를 위해 학교를 방문한 박종진 이사장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김세중 국민은행 영천지점장이 학교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하였다. 국민은행은 학교발전을 위해 매년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금년도에 누적액 1억원을 초과한 1억 700만원을 기부함으로써 학교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3사 27기 동기회 학교발전기금 천만원 기부

4월 29일 3사관학교 교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뒤늦게 임관 30주년 기념식을 가지며, 후배 생도와 학교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1000만원을 출납하였다.

발전기금 참여 안내

- 입금계좌**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부자명은 띄워쓰기 없이 6자 이내로, 또는 전화연락
 - 졸업생 → (예시) 00기김삼사 우인/단체 → 입금 후 재단연락
 - 재학/졸업생 부모 → (예시) 58박조국부, 58이충성모 / 00홍길동부(숫자는 자녀 기수)
 - 세금정산용 영수증 발급 및 기타문의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054) 330-3180, 3182

